

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제3차 지원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제3차 지원신청
- 회의일시 : 2017. 9. 26(화) 10:00~16: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5층 스튜디오 하늘

2017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대관료 지원사업) 제 3차 심사총평은 다음과 같다. 이미 1, 2차 지원사업이 심의 종료된 터라,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문제는 없었다. 각 분야마다 2명의 심사위원이 배정되어 전체 서류를 읽고, 토의를 거친 다음, 개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단체, 지원금 등을 결정했다. 3차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9월 1-8일이었다.

1. 연극분야의 지원건수는 111건, 무용은 22건, 음악은 113건, 전통은 16건이었다. 전체 지원금 신청액은 1,155,472,880원 이었고, 지원 결정액은 약 281,000,000원 이었다. 배정예산규모를 보면, 연극은 이 가운데 55%, 무용은 13%, 음악은 27%, 전통 예술은 5%를 차지했다.

2. 심사기준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50%, 공연단체의 역량 3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20%로 정했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지원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대관계약서 등 필수 제출서류 미비 단체, 사업신청 포기단체, 신청주체 오류단체 등의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따라 기준에 맞게 심의하였다.

4.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공연)이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 만큼 많은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의 긍정적 특징이 되기도 하지만,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낳기도 했다. 이미 공연된 작품에 대한 평가와 공연될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너른 이해와 평가 기준이 필요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실행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심사위원들이 동의했다. 이는 지원한 단체들이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조건에 해당되기에 여기에 적어 놓는다.

5. 전체적으로 3차 지원신청 시기는, 공연예술 단체로 보면, 비교적 소극적인 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이르러 공연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지원 단체들의 사업들을 보면, 많은 부분 이미 실행한 사업인데, 이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연극의 경우, 새로운 공연보다는 이미 실행 중인 장기 공연 등이 많은 것은 이 3차 지원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속제는 제목처럼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에 맞는 기준, 내용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도 아울러 마련되어, 예술가와 단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분야 심사평을 아래에 쓴다.

1. 연극분야

연극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기 공연 사업들이 많아, 심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과 지방을 고루 배려하려는 노력을 했다. 1차와 2차 때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들이 거꾸 지원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심사 자료들을 잘 확인하려고 했다. 뮤지컬의 경우, 주식회사와 같은 공연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심사위원들은 이 사업의 취지대로, 예술가 고유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 이는 이 사업의 취지가 창작 지원사업의 기초가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번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단체나 공연작품보다는 처음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나 작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 무용분야

무용분야 심사기준은 작품성과 예술가의 고유성에 비중을 두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공연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지원하였다. 공연단체가 이 사업으로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최종 심사 후, 공연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해야 했다. 이는 무용 분야의 고른 지원과 예술가들의 역량을 중시하려는 태도로 여겨지면 좋겠다.

3. 음악분야

음악분야에서 두드러진 심사기준은 고른 분배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예술가 고유한 역량이 발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다. 기획사가 주최가 되는 사업보다는 예술가 및 단체가 스스로 개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여겨,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했다. 또한 예술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개인공연에 대해서는 이 지원을 통해 사업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지원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했다. 전체적

으로 보면, 많은 단체가 두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선정건수로 보면, 음악이 두드러진 편이다.

4. 전통분야

전통분야의 지원건수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열악한 공연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행사 위주의 공연보다는 예술가 고유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지원신청을 긍정적으로 심사하였다. 적은 지원건수에 비하면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다만 공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형식, 실험적 노력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앞으로 이 분야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여긴다. 이를 여기에 쓰는 이유는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전통예술의 담보상태에 대해서 깊이 우려했고, 이를 반영해서 전통예술의 복원을 위해 심사하려고 했다.